

왜 아직도 創造論인가

그리스도교는 왜 아직도 창조론인가.
그리스도교가 보는 진화론은
‘類’의 진화는 부정하나
‘種’의 진화는 인정한다.
즉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식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현대인들을 자아상실과 소외 공허로
몰아 넣고 있다.



朴基浩
〈다미아노·사당동천주교회 신부〉

안개진 강변의 아침, 태고의 신비를 명상하는 종교인에게 과학자는 “안개란 수증기의 집단현상이다.”고 외친다. 존재사물의 정체를 파헤치는 과학에 의하여 종교적 신비들은 해체당해 왔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과학은 종교의 시녀로서 학대받고 있었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등장한 근대 이후 시대는 ‘종교적 영역들을 과학에 빼앗겨 온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 특별히 종교사회는 ‘지동설의 입증’, ‘종의 진화론’, 그리고 ‘시험관 아기’의 등장을 통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의 경전인 구약성서의 창세기를 통해 느껴지는 당대의 물리적 세계관은 지상의 어딘가에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고, 천상의 나라에 천체가 매달려 있으며, 땅 아래는 궁창같은 세계가 있다고 믿었으니 도그마(Dogma)가 곧 법이었던 시대에 과학정신이 받은 억압이 오죽했으랴. 그러나 현대인들이 창조론을 일종의 신화나 전설적 민담으로 일축하는 것도 사필귀정일 것이다. ‘486 컴퓨터’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종교인으로서 과학기술의 놀라운 업적에 경탄하고 감사하면서 과학정신을 존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왜 아직도 창조론인가?”를 과학적 진화론에 비추어 말하려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교가 보는 진화론에 대한 입장은 ‘류(類)의 진

화’는 부정하나 ‘종(種)의 진화’는 인정한다. 이에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식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진화론은 생태계의 환경적응보다는 인류 보편적 역사발전 이론으로 원용되고 있음은 진화론이 이미 다윈의 손을 떠났다는 해석학적 의미일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 논제의 목적성이 다르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 증명해 가는 학문이다. 진화론은 현상에 대한 원인, 즉 “생태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규명해 보려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과거규명의 차원이다. 그것은 이미 고대 회랍에서 생성 변화 소멸하는 자연의 이유를 밝히려는 자연철학의 관심사였다.

創造論은 과학을 아름답게

반면에 창세기의 창조론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려는 것으로 세계개조의 차원이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하여 어떤 정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진화론이 원인론이라면 창조론은 목적론이다. 따라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는 진화론적 탐구자세를 지닐 것이요, 새로운 실천대안을 찾으려는 이는 창조론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정신세계의 붕괴와 비인간화로 치닫는 시대일수록 창조론적 삶의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창조론은 과

학을 과학답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과학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변화시키면서 인류에게 더욱 풍요로운 혜택을 베풀었다. 생명도 연장시켰다. 이는 밤늦도록 불켜진 연구실에서 생애를 바쳐온 과학자들의 탐구정신과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 덕분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자아상실과 소외와 공허도 바로 과학문명으로부터 왔다. 노동의 신성함과 땀의 아름다움, 종족의 전통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당시의 파푸아뉴기니는 문명의 원시상태였지만 별거벗은 원주민들의 평화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문명이란 이름아래 티셔츠와 청바지를 걸친 그들의 땅은 포르노와 마약, 권총강도로 신음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利器)와 소비는 쓰레기를 낳고 자연과 환경을 학대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칼과 같아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에 과학을 우상화 하는 사고(思考)는 비과학적 태도이다.

과학이 자본의 시녀가 돼서야...

오늘날 과학기술의 절대적 문제점으로 꼽는다면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개발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주문자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되는 것이다. 신세 · 정신장애자, 노약자들, 소외계층에게 과학의 혜택이 적은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다.

물질적 발전과 성장이란 하나의 경주여서 멈추면 패배한다. 브레이크 없

이 달리는 기관차다. 성장이란 계속적인 소비를 전제하므로 인간을 소비자로 대상화시킨다. 그래서 과학자가 만든 원자력발전소는 기업인들에 의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선전하면서도 절전운동을 강조하거나 정책적으로 전기의 소비를 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약의 미덕에 대한 강조는 이제 어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기술발전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면 결국 종교의 시녀였던 과학이 자본과 기업의 시녀로 전락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과학기술을 견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던 인간에게 언어의 단절이라는 재앙을 내린 것이다. 기술을 절대화하는 과학문명의 오만은 사람끼리의 조화를 분열시키고 투쟁에 나서게 만든다는 교훈이다. 분열된 언어를 복구시키는 이야기가 신약성서에 나오고 있다. 예수가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자 민족간에 막혔던 언어가 소통된다. 하느님의 법에 따르는 것, 자연의 섭리와 윤리 도덕에 순명함에서 자아와 사회의 실현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정신과 윤리가 없는 과학은 바벨탑을 쌓는 불행에 불과하다. 컬럼버스의 탐험정신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과학이 지녀야 할 정신과 태도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세계가 볼 때는 '발견'이었는지 모르나 거기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지의 지대에 대한 여행에 불과했던 것을 정복자의 자격으로 삼음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파괴와 전쟁, 죽음을 불렀던가.

과학은 종교와 철학의 동반자

인간에게 무한한 욕망이 셋 있으니 소유욕과 명예욕(지배욕)과 인식욕이다. 인식욕은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다. 그러나 끝없는 욕망은 탐욕이 된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무한한 욕망에 대한 자발적 정지가 곧 행복의 조건임을 가르쳐 준다. 하느님은 인간이 지상사물을 지배하고 부리되 절대영역의 몫을 남겨두라 했으나 그것마저 정복하려던 욕망이 타락과 추방의 삶을 초래한 것이다. 인간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에 심혈을 쏟는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인간상실 뿐이다. 생산에서 시간의 단축은 잉여를 낳고 자본을 낳는다. 자본은 지배와 착취, 향락과 오염과 죽음을 낳는다. 창조적 목적성이 없는 과학, 영혼이 없는 과학은 묘지로 가는 마차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맹자는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과유불급)"했다. 인간의 지혜로 빛은 기술에 의하여 인간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이상의 새로운 기술이 정말 필요한가?", "오늘로써의 기술문명을 고정시킨다면 인간은 더 불행할 것인가?"를 질문할 때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인들의 탐구주제는 성과 업적들을 반성하고 잃어버린 것들의 복구기술에 힘 쏟는 일이다. 하느님의 창조세계는 인간이 주인인 세계다. 인간화에 기여하는 과학만이 진정한 창조행위다. 창조론과 과학윤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과학이 과학의 목적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종교와 철학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과학인은 종교인이다. ①7